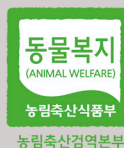


이런 암탉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달걀 구입 시 '동물복지' 혹은 '유기농' 마크를 확인하세요.



'동물복지' 인증 달걀은 국가에서 정한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닭이 가진 본성을 존중해 사육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입니다.



유기축산물물은 동물복지 인증 제품보다 더 비싸지만 케이지 사육 금지 등 기본적인 본성은 충족하게 하므로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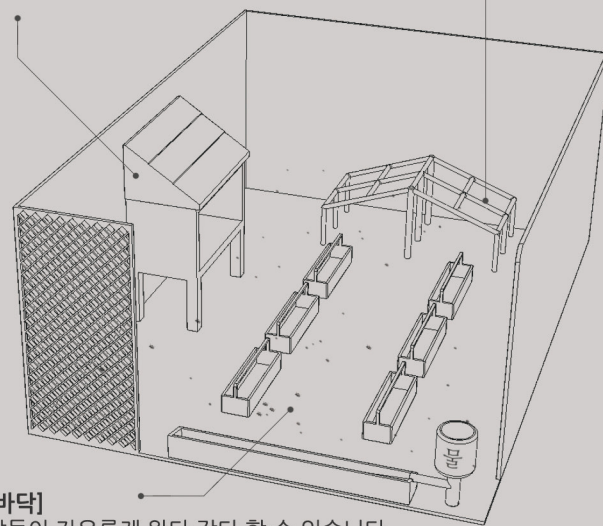
암탉이 행복한 동물복지 농장은?

[햇대]

닭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본성이 강합니다. 햇대에 올라가면 운동도 되고 뼈도 튼튼해집니다.

[산란상자]

편안한 마음으로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바닥]

닭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모래찜질 및 바닥조기]

모래찜질은 깃털과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바닥을 쪼며 먹이를 찾는 본성을 충족할 수 있으며, 다른 동료를 쪼는 '카니발리즘'을 예방합니다.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합니다.

오직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동물이 가진 본성은 고려하지 않고 동물을 마치 기계처럼 취급하는 공장식 축산은 동물이 고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대형화, 밀집화 되어가는 공장식 축산은 동물을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어 항생제 등 각종 약물 사용으로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 등 악성 전염병의 빠른 전파로 동물을 산 채로 땅에 묻는 대량 살처분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비인도적인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및 공중 보건 문제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산란계의 Battery cage 사용을 금지했으며, 뉴질랜드와 인도, 미국, 호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해 '동물복지' 마크가 표시된 달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는 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한 방법입니다.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07-18 / www.animals.or.kr
전화 : 02-2292-6337 팩스 : 02-2292-6339

후원계좌
국민은행 : 806201-04-005468
농협 : 015-17-002592 예금주 (사)동물자유연대
* 홈페이지에서도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암탉은 걷고 싶습니다!

1일 3,774만개, 연간 130억개가 넘는 달걀을 낳는 우리나라의 암탉들...

암탉은 걷고 싶습니다.
암탉은 날개라도 조금 펴고 싶습니다.
암탉은 고질적인 질병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 더 건강한 알로 보답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케이지에 묶여있는
암탉의 삶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농장동물복지 캠페인]
A4 반장 위의 삶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먹는 달걀을 낳는 암탉은 가로 25cm x 세로 25cm의 케이지에 두 마리가 간혀 평생 알 낳는 기계로 살아갑니다.

A4 반강만한 공간에서 제대로 서거나 앉기도 힘든 상태로 자연 상태 10배에 해당하는 알을 낳습니다.

이런 암탉이 저렴한 양계장, 비좁은 철장에서 벗어나 별을 보는 순간은 바로 알 낳는 능력을 다 소진하고 죽임을 당하러 가는 때입니다.



Photo by 한겨레 강재훈 선임기자

알 낳는 닭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깃털 빠짐, 피부 염증]



좁은 케이지 창살에 반복적으로 몸이 부딪혀 깃털이 빠지거나 상처를 입고, 만성 염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부리 끝이 잘립니다!]



날갯짓을 할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 사는 닭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다른 닭을 공격하는 '가니발리즘'을 나타냅니다.
농장에서는 이로 인해 닭이 죽는 것을 방지하려고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리 끝을 자릅니다.
인간의 손처럼 감각이 예민한 닭의 부리를 자르는 것은 닭에게 심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먹이를 찾고 쪼아 먹는 기본적인 삶을 힘겹게 합니다.

[골다공증, 다리 부상]



과도한 산란으로 인한 칼슘소모, 감금 사육으로 인한 운동부족은 닭에게 흔히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이는 닭을 매우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원인입니다. 구멍이 송송 뚫린 철망 바닥은 발톱을 기형적으로 자라게 만들어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합니다.

[강제 털갈이(강제환우)]



암탉이 생후 65주가 되면 산란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많은 농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닭의 생체리듬을 바꾸기 위해 10일 안팎의 기간 동안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짊어진 곳에 가두는 극한의 환경을 만듭니다. 이 강제 털갈이 과정을 버티지 못한 닭은 죽게 되고 살아남은 닭들은 다시 6달 정도 더 알을 낳고 죽임을 당합니다.

[농장동물복지 캠페인]

A4 반강 위의 삶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